

주간 변화와 소통

제11-8호

2013년 4월 11일(목)

홈페이지: kttu.or.kr

트위터: twitter.com/kttu_kr

대체휴일 밀어붙이려면, 조속히 법제화하라!

2008년부터 논의만 무성, 박근혜 정부 적극... 근로자 '반색', 재계 '글썸'

'대체 휴일제'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지난 2월 21일 발표된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대체휴일제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이어지는 주의 월요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휴일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정된 것은 없다.

대체휴일제 도입은 2008년 처음 등장한 후 그 동안 논의만 무성했으나, 이번에는 정부의지와 국민적 공감대에 힘입어 속도를 낼 듯하다. 일본은 1998년부터 4개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기는 해피 먼데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 휴일제를 도입할 경우 단기 휴가가 늘어나면서 국내여행 산업이 활성화 되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휴일제의 면면과 기대효과를 살펴본다.

주말 겹친 공휴일 현황

(2013~2015)

2013 년	설	2월 9~11일(토, 일, 월)	3일
	어린이날	5월 5일(일)	
2014 년	설	1월 30일~2월 1일 (목, 금, 토)	3일
	3.1절	3월 1일(토)	
	추석	9월 7~9일(일, 월, 화)	
2015 년	3.1절	3월 1일(일)	5일
	현충일	6월 6일(토)	
	추석 연휴	9월 26~28일(토, 일, 월)	
	개천절	10월 3일(토)	

더 쉬자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휴가 되찾자는 것!

한국노총은 지난 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자 92.7%가 대체휴일 도입을 찬성했다고 밝히며 대체 휴일제 추진에 힘을 실었다.

대체공휴일제는 공휴일 수를 현행보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규정되어 있는 연간 14일의 공휴일 수를 매년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명목상 공휴일 수는 미국(14일), 일본(15일), 독일(15일) 등 주요

1/3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실제 공휴일 수는 6~11일 에 불과하다.

사실 지난 10년간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은 연평균 2.2일이다. 따라서 원래 공휴일이었는데 휴일과 겹쳐 잃어버린 날을 되찾자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요일지정 방식 휴일제와 대체공휴일제를 통해 연간 공휴일 수를 보장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날짜지정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공휴일과 토·일요일의 중첩이 불가한 것이다.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라...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가 나온 것은 최근의 일 이 아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업 부담과 일용직근로자 소득감소 등의 문제 제기가 발목을 잡아 장기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나갔다.

국회에서도 대체휴일 도입 논의가 진행됐었다. 18대 국회에서 6명의 의원이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공휴일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이 여전해 제도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어야 소비도 생긴다"며 "경제계가 걱정

하는 것은 기우이며, 동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단기휴가로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여행, 유통업 벌써부터 '쾌재'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3일 연휴가 생겨 여가와 관광 등 내수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대체휴일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직장인 다음으로 반색한 것은 여행업계와 유통 업체다. 한 매체는 '1년에 3일의 대체 휴일이 발생하면 2조3000억 원의 추가 여행경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업체들의 경우 주5일 근무제에 이어 대체휴일까지 발생하면 가족단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4월 9일 롯데백화점은 업계최초로 연차를 활용한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이어지는 다음 월요일까지 쉬도록 하는 '해피 플러스 데이' 제도를 전사적으로 도입 한다는 것이다. 연차를 활용해야 하지만, 당장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5월 6일이 '해피 플러스 데이' 로 지정돼 사흘간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셈이다.

연간 2.2일 확충되면 민간소비 증가효과 커

실제로 주5일 근무제 시행 후 유통업, 엔터테 인먼트업, 여행업과 연관산업의 매출이 증가한 바 있다. 또 프랑스·미국·일본·중국 등은 각각 경제대공황 및 극심한 경기불황을 타계하기 위한 일환으로 휴일정책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연간 2.2일의 휴일이 확충되면 민간소비 증가로 인한 총 생산유발효과가 16조원, 고용유발효과가 11만명

에 이른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사회적 편익을 포함한 편익은 총 35조원 정도로 추산됐다. 물론, 휴일근로수당 등 기업의 추가비용은 11조 원 늘어나, 이를 감안한 순수한 편익이 24조원으로 산출됐다.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300시간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재계 반응은? '글썸'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삶과 일의 균형을 대세로 보고 스마트워킹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라 당장 대체휴일제가 시행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당장의 비용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대기업 중에서도 365일 조업해야 하는 기업은 대체휴일제 실시로 인한 인건비 부담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가 선진국과 비교 해도 적지 않다"고 주장하며 "며칠 더 쉬게 되면 중소기업은 조업일수가 줄어들어 생산성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 강조한다.

근로자 상당수가 대체휴일제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우세한 가운데 재계는 연차휴가사용 활성화를 대안으로 꼽고 있다. 재계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연차휴가 일수는 15~25일에 달하는데 사용률은 40.7%에 불과하고, 사용하지 않는 일 수는 현금으로 보상받고 있다고 밝힌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할 경우 최대 11일의 휴일이 증가하게 되고 대체휴일제 도입 효과를 훨씬 초과한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당을 없애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달갑게 볼 수 없다.

정부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이벤트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가시화 시켜 국민적 신뢰 회복의 방편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성명]

대체휴일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대체휴일제'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대체휴일제는 장시간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에게 잃어버린 공휴일을 되찾아주는 제도이다. 노동자들이 솔하게 외쳐온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한 기본 중의 하나가 충분한 휴식이다. 선진국 대부분이 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체휴무일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대체휴일제도의 실시로 내수진작뿐만 아니라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대체휴일제의 조속한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 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92.7%가 대체휴일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속한 법제화이다.

그 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수 차례 논의해 왔지만 '말의 성찬'으로 끝나버리고, 결국엔 시행되지 못한 것이 바로 대체휴일제이다.

한국노총은 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 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3년 4월 2일
한국노총

3/3